

광양시공공산후조리원, 내년 3월 개원... 예약은 1월 중 시작

“안전관리, 감염관리, 모유수유 프로그램, 신생아 케어 등 전문 서비스 갖춘 전국 수준 시설로 운영”

광양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정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초 202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개원 시기를 2026년 3월로 변경한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일부 공정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늦춰진 상황이다. 시는 준공 후 필요한 장비 설치와 감염관리 점검, 내부 시운전 등을 거쳐 2026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 홈페이지, MY광양 앱, SNS 등을 통해 개원 예정일 변경을 안내하고 있으며, 등록 임신부에게는 문자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은 2026년 3월 출산 예정 산모부터 가능하며, 2026년 1월 12일부터 미래여성지원(☎ 070-4292-8223~4)에 전화해 상담 및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시스템(전남아이톡)'과 연계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061-797-406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출산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예정 일정이 조정되면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전관리, 감염관리, 모유수유 프로그램, 신생아 케어 등 전문 서비스를 갖춘 전국 수준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8223~4)에 전화해 상담 및 예약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시스템(전남아이톡)'과 연계한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061-797-406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출산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예정 일정이 조정되면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전관리, 감염관리, 모유수유 프로그램, 신생아 케어 등 전문 서비스를 갖춘 전국 수준의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 발대식

진원면 학전마을 등 11곳에 이동장터 차량 운행

장성군이 최근 진원면 생활공유센터에서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 발대식을 가졌다. 진원면민을 비롯해 김한중 장성군수,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는 진원면 학전마을 등 11곳에 생활품, 식료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동장터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 시범지구에 장성군이 선정되며 추진이 본격화했다.

이후, 장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장성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끝에 이날 발대식을 갖게 됐다. **장성/황해연 기자**

판매 물품은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부터 음료, 식품까지 다양하다. 구입한 물건은 배송기사가 집까지 직접 배달해 준다.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 미리 주문하면 육류, 계란 같은 신선식품도 살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온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도란도란 장터'가 효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장성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식품사막'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사막'은 인구 감소 등의 사유로 식품점들이 문을 닫아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을 말한다. 199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고흥군 보건소, 2025년 대한결핵협회 기관상 수상

선제적 검진으로 '청정 고흥' 실현 공로 인정

고흥군(군수 공영민) 보건소는 8일 2025년 결핵 예방·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결핵협회로부터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선제적 검진과 적극적인 결핵 확산 방지 노력을 통해 '청정 고흥'을 실현하려는 군 보건소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군 보건소는 그동안 경로당, 재가노인 복지센터 등에서 총 7,616건의 결핵 검진을 하며 조기에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신환자 발생률이 22%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핵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환자 등록, 투약 관리, 접촉자 추적 검진, 비 운전자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결핵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결핵 예방·관리 활동이 지역 보건 향상과 결핵 발생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군은 앞으로도 노인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관상 수상은 결핵으로부터 깨끗한 '청정 고흥'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군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결핵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신환자 발생률이 22%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핵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해 환자 등록, 투약 관리, 접촉자 추적 검진, 비 운전자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결핵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결핵 예방·관리 활동이 지역 보건 향상과 결핵 발생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군은 앞으로도 노인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관상 수상은 결핵으로부터 깨끗한 '청정 고흥'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군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결핵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적은 효과로 보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군은 앞으로도 노인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선제적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관상 수상은 결핵으로부터 깨끗한 '청정 고흥'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군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결핵 전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시, 한파에도 안심하고 머무는 '따뜻한 경로당' 조성

한파쉼터 경로당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복지시설 강화

순천시는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한파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 8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한파 대책 기간(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3월 15일)을 앞두고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파쉼터 역할을 하는 경로당의 기능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0월부터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57개 경로당에 총 3억 2천만원을 투입해 쉼터 시설을 정비했으며, 12월에는 경로당 난방기기 교체를 희망하는 순천시 소유 25개소 경로당에 한파를 대비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추가 지원 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한파가 점차 장기화되는 만큼, 경로당이 단순 여가 공간을 넘어 안전한 한파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안전한 복지시설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1월부터 24개 읍면동과 협업체 동절기 경로당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세심한 점검을 위한 '경로당 화재예방 안전점검 사업'을 신설해 미비한 전기 설비를 보완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대불산단 등 지역 산업 현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을 유지했다.

이달 2일 국회가 확정된 '2026년도 본 예산'에는 영암군이 제안한 총 1,339억원 규모의 5개 핵심사업이 반영됐다.

이중 총사업비 126억원의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은 전액 국비로 지어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25억원이 반영됐다.

영암 대불산단에 2031년까지 안전체험교육장 건립된다

총사업비 126억 전액 국비 확보... 국회 내년 본예산에 25억 반영

영암군은 조선업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 등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해 체험교육 위주의 안전교육장을 건립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2023년부터 수차례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을 찾아 대불국가산업단지 안전체험교육장 설치를 건의해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은 내년 부지 매

입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건립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게 하겠다.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은 내년 부지 매

입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건립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안전체험교육장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 시설로 자리 잡게 하겠다.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영광군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12월 5일 기준 90%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용률 제고 총력

영광군, 연말까지 행복바우처 포인트 20만 원 꼭 사용하세요

연 20만 원씩 NH채움 포인트로 지급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매년 일부 대상자가 사용 기간을 놓쳐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지

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해 미사용률을 줄이고자 관리에 나섰다.

영광군은 읍·면사무소와 협력하여 대상자 잔여 포인트 및 사용독려를 위한 문자

발송과 유선 안내를 통하여 사용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사용한 포인트 잔액은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연내 사용하여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용가능한 문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여성농어업인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